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대표 이미지로 '한식'을 가장 많이 떠올렸다.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한식'

해외문화홍보원,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발표
동남아·중남미·러시아서 가장 높은 호감도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한식'과 '케이팝'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해외문화홍보원(원장 김태훈, 이하 해문홍)은 22일 2018년도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6개국 8,000명 대상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리나라에 대해 가장 많이 접하는 분야는 '현대문화(36.2%)'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분야는 한류, 기초예술 등 '현대문화(36.2%)'이며, 이어서 '경제(18.1%)', '안보(17.8%)', '문화유산(10.7%)'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와 미주는 '현대문화', 유럽과 아프리카는 '안보', 인도와 러시아는 '경제'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 습득 매체는 누리소통망(SNS),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46.6%), 방송(33.4%), 신문·잡지(9.5%)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다수 국가들이 주로 온라인 매체로 우리나라 정보를 접하는 반면, 일본(46.6%), 영국(44%), 독일(42.6%), 미국(40.2%)은 방송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았다. 한편 매체별 분석 결과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현대문화(47%)'를, 방송으로는 '안보(30.1%)' 분야를 접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한식(40%)'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대표 이미지로 '한식(40%)'을 가장 많이 떠올렸다. 이어서 케이팝(22.8%), 한국문화(19.1%), 케이-뷰티(14.2%) 등으로 조사되어 전반적으로 한류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핵심어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국민보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평가(80.3%)

우리나라의 전반적 이미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평가하는 것보다(긍정 54.4%) 외국인들이 평가하는 이미지(긍정 80.3%)가 더욱 긍정적이었다. 긍정적인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리의 한류, 기초예술 등 현대문화(35.3%)가 가장 높았고, 이어서 경제수준(17.5%), 문화유산(12.3%), 한국제품 및 브랜드(12%), 북핵문제(5.7%) 순이었다.

특히 외국인들이 과거 부정적으로 인식했던 북핵문제 이슈를 국가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꼽아,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대외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 중남미, 러시아에서 가장 높은 호감도

국가별 분석에 따르면 동남아(인도네시아, 태국), 중남미(브라질, 멕시코), 러시아가 대한민국 이미지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긍정 90% 이상)했으며, 서구권(프랑스, 독일, 호주,

미국, 영국) 국가의 긍정적 평가 비율도 높았다. 일본(긍정 20%)의 긍정적 평가 비율은 낮았다. 지난해 한일 민간단체들이 실시한 양국 국민의 인식 조사에서도 한국과 일본 국민들의 상호 호감도는 비교적 낮은 편으로, 양국의 관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평가된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답변(긍정 65.7%)했으며, 이는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긍정 48.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도의 국가적 행사였던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대해 외국인들은 대다수가 국가 이미지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긍정 74%)을 미쳤다고 보았다. 또한 지난해 4월에 열렸던 남북정상회담의 국가이미지 제고 효과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긍정 70.1%)했다.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사에 참여한 모든 국가에서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40.8%)'을 최우선 과제로 뽑았다. 중남미 국가(멕시코, 브라질)와 남아공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홍보'를, 일본은 '외국인에게 친절한 국민 태도'를 선택한 응답자가 두 번째로 높았다. 해문홍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별 친밀도와 분야별 강약점을 고려해, 국가별로 차별화된 해외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정치적, 외교적 관계와는 별도로 민간 차원의 문화교류가 활발히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18년도 국가이미지 조사 결과는 문체부(www.mcst.go.kr)와 해문홍(www.kocis.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한국 현대무용의 진수 널리 알려

전북대 이준모 교수, 지역 무용예술 발전 공헌상 수상

전북대학교 이준모 교수(무용학과장)가 지역 무용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무용교수총연합회(회장 김재영)가 주는 공헌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21일 중앙대학교에서 열렸다.

한국 무용교수총연합회는 무용전공 교수들의 공연활동 및 국제안무가 예술교류 등을 위해 2003년 조직된 단체로, 매년 국제무용제와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이 교수는 '뉴욕 솔로듀오 댄스페스티벌'을 통해 한국 현대무용의 진수를 보여 미국 현대무용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으며, 한·미 국제무용교류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

한편, 이 교수는 2009년부터 우리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17년 작품 '꽃신'을 통해 (사)대한무용협회가 주는 '올해의 최우수예술가상'을 수상했다. 또한 2015년 한국현대무용협회 '댄스spirit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불교



무용대전 대상, 2013년 국제 안무대회 무용예술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장은성 기자

문체부,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기관 모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에 따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문체부는 2015년부터 지역 문화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7개 내외의 지역 양성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대학, 지역문화재단, 지역문화 연구 및 진흥 관련 기관·단체 등이며, 해당 기관 간에 연합체를 구성해 공모에 신청할 수도 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되는 기관에는 앞으로 2년 동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은 정규과정과 심화과정으로 운영된다.

△정규과정은 입문과정(전국 통합 오리엔테이션), 지역과정(공통교육 및 지역특화교육 운영), 통합과정(전국 문화전문인력 교류(네트워킹))으로 구성되며, △심화과정은 국제교류과정과 최종발표회로 구성된다.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공모 신청은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공문서 및 전자우편(jeonga001@korea.kr)으로 2월 15일까지 하면 된다.

공모 심사 및 결과 발표는 2월 말에 진행될 예정이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지역문화정책과(☎ 044-203-2625)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뉴시스

지난해 세계 관광객 14억명... 2020년 전망치 2년 빨리 달성

지난해 전 세계를 여행한 관광객이 14억명에 달하는 등 관광업계가 호황을 누리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국제연합 세계관광기구(UNWTO)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주라브 폴롤리키슈빌리 UNWTO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가장 큰 원동력 중 하나가 관광업이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UNWTO는 지난해 14억명의 해외 관광객이 전 세계를 여행했으며, 이는 2020년에나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한 수치라고 전했다.

UNWTO 측은 "예상보다 2년 앞당겨진 것은 경제 성장, 비자 확대, 저렴한 항공여행 등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중동으로의 관광객 수 증가는 10%, 아프리카로의 관광은 7%, 세계 평균 6% 이상을 상회했다. 아시아, 태평양, 유럽 모두 6% 가량 성장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